

노래교실의 주부열기, '매우 한국적인 여성문화'

스타로 부상한 노래지도 강사 구지윤 씨의 노래교실을 찾아

문화센터마다 노래교실이 호황이다. 노래부르기 교실을 찾는 이들은 거의가 주부들이다. 노래교실마다 주부들이 가득 들어 앉아 목청을 높이는 장면은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된다. 이런 노래교실의 호황은 우리나라 여성문화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대중적인 여성놀이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돈을 내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 어느 때 도 존재치 않았던 새로운 현상인 것이다.

독보적인 인기유지 비결 심리치료 기능 자부

이런 분위기는 노래부르기 교실 강사를 대중스타의 명단에 포함시키기에 이른다. 현재 가장 인기있는 노래부르기 강사는 구지윤 씨. 구 씨는 83년 문화센터 노래부르기 강사로 출발, 지금은 보통 주부들 마음을 가장 잘 사로잡고 있는 유명인사로 자리잡았다.

수많은 노래부르기 강사 중에서도 독보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구 씨는 자신의 역할이 심리적 치료의 기능을 한다고 강조해 왔다.

"나는 그들의 삶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노래로 온갖 시름을 날려 보내는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89년 12월 여성동아 인터뷰)고 소신을 밝혔던 그는 기자와 만난 93년 11월에도 "부인병의 70%는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고픈 말을 하지 못해서 생겨났다"는 통계를 인용해 주부 심리를 해석했다.

구지윤 노래교실을 1년 넘게 다니고 있는 50대 주부들은 "똑 같은 노래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그저 그런데 구지윤 씨는 그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들게 한다"면서 "다른 곳은 가기 싫다"고 말한다. 다른 주부들도 구지윤 씨의 노래 시간을 "가슴이 뚫린다", "즐겁다", "생기를 배운다"는 말로 표현한다.

그는 우리나라 주부들의 심리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해 온 사람이다. 그의 성장과 그의 고급 스타일을 주목하면 그 속에서 '매우 한국적인 여성문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90분간의 노래수업 듣고, 보고, 움직이기

구지윤 씨는 지금 압구정동에 <구지윤 여성문화원>을 열었다. 가전물을 임대해서 쓰



는데 그의 노래교실을 비롯해 차밍 디스코, 유아발레, 부모 역할 훈련 같은 다양한 여성교육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그의 노래교실이 열리고 있는 시간을 택해 그곳을 찾아봤다. 구지윤 씨는 바바리 차림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다. 그의 '만남' 연주에 맞추어서 어머니들이 노래한다. 교재는 어머니 노래부르기를 위해 발행된 노래책. 악보와 글씨가 큼직큼직해서 보기가 좋다. 구 선생은 페이지수만을 불러주며 피아노 반주를 계속한다. '만남' 다음엔 '고향의 봄', '나의 노래'가 흐른다. '영영'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학생들이 박자를 놓치자 구 선생이 교정해주며 '네 박자'임을 강조해준다. 그 다음엔 '추풍령'이 나오고 '절레꽃'이 나온다. '절레꽃'은 템포가 빨라서 분위기의 변화를 예상케 한다.

'절레꽃' 합창이 끝난 후 구 선생은 중앙에 마련된 무대로 나온다. 교단의 높이와 늘씬한 구 선생의 키는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무척 높아보인다. 무대에 선 구 선생은 바바리 안에 반쳐입은 빨간 원피스와 빨간 구두가 시선을 끈다.

이 상태에서 시작된 노래는 심수봉의 '미워요'. 한번 끝나자 구 선생의 멘트가 있다. '모임에 나가서 노래를 멋지게 부르는 주부를 보면 멋지게 보이고 노력하는 주부로 보인다. 전에는 좋은 옷 입으면 멋지게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한가지 멘트는 결혼식 하객에 대한 감사였다. 그의 장녀가 얼마전에 결혼했는데 초청장도 받지 않은 어머니들이 자진해서 하객으로 참석해 준 것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다. 그 결혼식으로 식당인 만리장성 3층 건물이 다 차고 교통혼잡도 대단했다고 한다. 구지윤 씨는 이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10년간 열심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죽어도 여러분 속에서 죽고 살아도 여러분 속에서 살며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고 정중히 감사의 말을 전했다.

'미워요'에서 '남자~ 남자~'하는 가사에서 뽀뽀하게 하지 말고 노래의 맛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 살짝살짝 몸을 흔들 것을 권한다.

이 노래에서 강사와 주부들은 상당히 가까워지는 느낌을 준다. 그 다음 나오는 노래는 '립스틱 질게 바르고', '애모'의 순서다.

김수희의 '남행열차'가 빠른 템포로 흘러나오면서 흥겨운 몸놀림이 시작된다.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구 선생은 바바리를 벗고 빨간 원피스 차림이 된다. 깔끔한 화장에 빨간 원피스와 빨간 구두, 날씬한 몸매가 보는 이의 눈에 생기를 심어준다. 앞면은 전면이 거울(차밍 디스코 교실로 사용됨)이기 때문에 빨간색의 강사는 더욱 눈에 띈다.

꾸미기 전문가인 노래 선생님

구지윤 씨는 대학 때 메이퀸 출신으로 타고난 미모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20년 젊게 사는 비법'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의 작선미와 히프선은 미혼 아가씨와 다를 바가 없음을 매스컴들에서 홍보해 왔던 바다.

그에게서 노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구 선생의 이러한 면모에 반한다. 말하자면 그는 '꾸미기'의 전문가다. 꾸미기는 모든 여성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전문 영역이다.

모든 여성은 날씬하고 예쁘고 화려하고 애교스러운 외모를 지니게 되길 원하는데 구지윤 씨는 바로 그 바람을 거의 완벽하게 실천하고 나타난 사람이다. 한 여성잡지의 꾸미기란에 소개된 구지윤씨는 '20년 젊게 사는 인생관'으로 밥 한끼를 먹더라도 격식을 갖추 것, 화려한 색상의 옷 고르기, 두려워하지 말 것, 나한테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버릴 것, 과감하게 당당한 차림으로 외출해 볼 것, 빨간 매니큐어 바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 것' 등의 꾸미기 지침을 권하기도 했다. 빨간색은 그의 대표적인 칼라라고 할 만큼 빨간 색을 즐기는 그다. 사위를 본 예비할머니이면 서도 20대와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구지윤 씨는 노화의 절망감을 마주한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무척 매력적인 인물로 다가갈 수 밖에 없다.

노래교실의 열기는 템포가 빠른 노래가 나오고 구 선생의 울동이 활발해질수록 고조된다. 그는 연말 회원모임에 대해 홍보를 하고 마지막 멘트인 듯 최근의 화제인물인 성철스님에 대해 말한다. 성철스님이 자기를 만나려면 3천배를 하라고 했으면서 이 말을 무언가 열심히 하면서 마음을 비우라는 뜻으로 해석해 전했다.

간단한 몸동작 기회조차 아쉬웠던 사람들

구지윤 씨는 의욕이 없는 것은 곧 죽음이라며 무언가 열심히 할일이 있다는 것,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한다. 그래도 노래 하나라도 배우려고 여기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임을 강조, 정리하는

멘트가 끝날 즈음에 '세상은 요지경'의 신나는 전주가 깔리기 시작한다.

어머니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사의 울동에 따라 몸을 움직인다. 두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박수를 치고 어깨와 허리를 비트는 정도의 운동, 그러나 어머니들은 무척 열심히 다. 구 선생의 동작은 가볍고 예쁘고 어머니들의 동작은 둔탁하나 의욕이 느껴진다. 가벼운 동작인데도 그것마저도 몸을 움직일 기회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 마지막의 몸풀이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노래가 끝나고 교실문을 나설 즈음에 어머니들은 한결 부드럽고 밝은 표정이었고 생기가 돌았다.

이론보다 즐거움을 주는 혼연일체의 강의실

이 노래교실처럼 교사의 존재가 잘 흡수되고 있는 강의는 본 적이 없었다. 여성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존재하는 수많은 교양강좌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열기와 편안함이 이 노래교실 속에 가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여성학이 설명해내야 하는 또 한 부분일 것이다.

경제적인 수준이 중상류층 주부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어머니들, 그들의 가족은 각기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어머니들에게 3달에 5만원 하는 노래교실에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친구들에게 함께 다니자고 권하다가 결국 자기 혼자 구지윤 노래교실을 다니고 있다는 한 주부는 자기 친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내고 뭐 배운

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살림하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여자들에게 자기 즐거움을 위해 투자되는 5만원은 그만큼이나 큰 돈이다. 그래도 이 돈을 자기를 위해 쓰기로 결정한 주부들은 대단히 용기있는 주부들로 보아야 한다. 작지만 큰돈을 투자한 주부들이기에 확실한 효용을 보고 싶어한다. 구지윤 씨는 기꺼이 대가를 주는 강사에 속한다. 노래 부르는 것은 기본이고 보기에 즐겁고, 애교스럽고, 편안하고, 예쁘다. 그러나 너무 멀리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에 차밍디스코 교사 경력도 있는 구지윤 씨는 노래 배우러 온 김에 몸도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한다. 다른 강사가 이만한 요건을 갖추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높이 사는 주부들은 구지윤 씨를 정말 좋아하게 되고 그 집 딸 결혼식에도 참석하게 되기에 이른다.

"나는 김지미처럼 예쁘지도 않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 박사학위를 딴 것도 아니고 재벌 집 마누라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이 노력하면 이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주부들에게 가능성과 자신감을 주고 싶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무리 화려하게 입어도 마음에 허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밝은 생각으로 의욕을 가지고 무언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우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부들의 마음 달래는 문화공간

한동안 조동춘 씨의 '사랑받는 아내' 론이 여성문화를 장악했었다. 한 여성잡지에서도 '성공하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적이 있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랑받는 아내' 상은 이제 서서히 수그러들고 있다. 그를 대신할 담론으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이다. 그러나 '삶의 역사'가 너무 짧은 페미니즘은 우리 어머니들이 의지하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편협하고 불편한 모양이다. '사랑받는 아내' 문화권에서 빠져나온 어머니들은 예쁘고 즐겁고 여성다움을 실천하고 있는 구지윤 씨를 바라보며 노래하는 가운데 편안함을 느끼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구지윤의 노래교실로 대변되는 여성문화의 현주소, 그곳은 여성학, 페미니즘, 사회운동이 꼭 거쳐가야 할 길목이다. <김효선 기자>